

“문학은 사회를 묘사하고 인생을 디자인한다”

지역 문인들 한 해 갈무리 동인 작품집 잇따라 펴내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역에서 문학 활동을 펼쳐온 문인들이 동인 작품집을 잇따라 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인집은 문인들이 같은 문학적 지향을 모토로 서로의 문학 발전과 지평을 넓혀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받는다. 동인들이 한 해 한 해 작품을 갈무리한다는 것은 동인회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 외에도 문학을 매개로 인근 장르와의 소통, 문인간의 교류를 견인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깊다.

강진 출신 문인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는 모란춘문학동인회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이들이 이번에 발간한 ‘모란춘’(43호)은 강진 출신 김영랑 시인의 시작 성취를 지향하고 회원들의 문학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40년 넘게 펼쳐온 창작 활동의 결실이다.

특집 ‘작고 회원 작품 재조명’에는 김재려 문인이 모란춘 창간호(1974)에 실었던 ‘甲寅年의 기도’ 등이 수록돼 있어 당시를 회고할 수 있는 잔잔한 여운을 준다. 동시에는 광일문화회장을 역임했던 김옥에 작가의 ‘내 안경’의 2편이 실려 있으며 시조에는 유현 시인의 ‘새벽녘’의 4편이 수록돼 있다. 동인들의 시에는 김미순·김충경·김정태·백형규·양지중·오근·윤영관·윤정남·이래향·이수화·정관용·주전이·최한선 시인의 작품이 소개돼 있다. 수필란에는 김명희·김선식·김지영·김해동·박양배·백형규·윤정남·윤준식·이성구·이현숙·장여옥·조강국 수필가의 글들이 담겨 있다.

모란춘 장여옥 회장은 발간사에서 “문학은 우리들의 사회를 묘사하고 인생을 디자인한다”며 “이번 43호를 통해 독자들의 마음 가운데 소통되고 공유되는 언어들이 그들에게 위로와 주고, 마음을 치유하도록 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25년째를 맞고 있는 금초문학회도 동인집 ‘돌고 돌아 선을 잇는’을 펴냈다.

모란춘문학동인회 ‘모란춘’43호

금초문학회 ‘돌고 돌아 선을 잇는’

시류문학회 ‘詩流’ 54호 발간



동인집은 문인들이 서로의 문학발전과 지평을 넓혀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작품집으로, 최근 연말을 맞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단체들의 동인집 발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모란춘문학동인회원들의 출판기념회 모습. <모란춘문학동인회 제공>

지난 82년 창립한 금초문학회는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회원들의 작품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인회원들은 모두 문예지나 신춘문예에 등단한 문인들로 만만찮은 문학적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저마다 다수의 작품집을 발간했다.

이번 동인집에는 장미경 작가의 소설과 이수운 작가의 희곡 작품이 실려 있으며 서향숙·이성자 시인의 시와 동시도 실려 있다. 안영옥 작가는 동화를, 김수자·장미경·조화련·조혜숙 수필가는 각각 수필을 게재했다.

이성자 회장은 “청춘을 꽃피우는 일도

시들지 않게 오래오래 지키는 일도 곁없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금초 회원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기에 오늘도 글 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문학 순수성을 보존하고 남도문학의 진흥과 발전을 모토로 지난 1980년에 창립했던 문학동인회 시류문학회도 동인집 ‘詩流’(54호)를 펴냈다.

시류문학회는 지난 1980년 8월 광주, 목포, 무안, 여수에 거주하는 문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모임을 갖고 54호를 내기까지 36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동인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자작시 낭송과 합창회를 통해 회원들의 문학적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번 작품집에는 고미선·김광·김애순·김요한·김용하·김창목·노창수·박지안·박행자·박형동·박형철·백학근·사홍만·신병은·오승희·오재열·윤용현·윤희남·이성관·이순희·이연화·이이행·이재설·임춘임·정인태·주광현·최재열·한복임 시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이순희 회장은 “詩流는 시의 서정이 강으로 흐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책갈피마다 ‘시류 54호’의 풍경소리가 가슴에 은은히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쟁 선율로 한 해 마무리

국악전수관 22일 김선제 명인 초청 송년 아쟁 연주회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9호 박종선류 아쟁산조 이수자 김선제 명인이 아쟁 선율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주회를 연다. 광주 서구가 운영하는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22일 오후 7시 제51회 목요열린국악한마당 ‘김선제 명인 초청 송년 아쟁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는 ‘산조(散調) Story’를 주제로 한일섭제 박종선류 아쟁산조와 현악3중주를 위한 ‘흠은산조’ 두 장르를 들려준다.

아쟁산조는 크게 소리제 산조와 시나위제 산조로 나뉜다.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소리제 아쟁산조 창시자인 한일섭(1929~1973) 선생으로부터 박종선에게 구전으로 전승된 산조다.

김 명인은 소리제 산조로 무대를 연다. 박종선류 아쟁산조의 전 바탕인 ‘긴 가락’을 45분 가량 연주할 예정이

다. 두 번째 곡인 ‘흠은산조’는 시나위제 산조이며 계면조로만 구성된 즉흥성을 많이 요구한다. 아쟁·해금·거문고로 들려주는 즉흥산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해금은 김선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거문고는 유소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장구는 김준영 광주시립국극단 상임단원이 맡는다.

김선제 명인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제34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제1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제3회 광주국악대전 일반부 최고상 등을 받았고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아쟁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7.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재원도 해양문화유산조사’ 영상 다큐 상영회

21일 신안 재원도 마을회관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1일 오후 5시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在遠島) 마을회관에서 ‘재원도 해양문화유산조사’ 영상 다큐멘터리(사진) 상영회를 연다.

연구소는 도서·해양 지역의 전통 해양문화유산 원형을 기록·보존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1개 섬을 선정, 종합 학술조사를 한 후 보고서 발간과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재원도는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중국 쪽에서 서해 북부로 이동할 때 거

치는 주요 해양 거점 항로에 자리하고 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봉대(등대)와 청자·백자 조각, 기와 조각은 재원도가 고려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항지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 한때 큰 파시(波市)가 열렸던 곳이며 지금은 새우와 민어잡이로 유명하다.

특히,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곳은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 유적지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원도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 일반인도 볼 수 있다. 문의 061-270-20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로터스갤러리 신인작가’ 김단비·박기태·양세미·이재원

4주간 개인전·창작지원금 제공

무각사가 주최·주관한 ‘제5회 로터스갤러리 신인작가’ 공모에 김단비(28·회화)·박기태(32·조소)·양세미(24·한국화)·이재원(31·설치) 작가가 선정됐다.

무각사는 지난 10월 한달간 공모를 진행했으며 청년 작가 12명이 응모해 총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 기준은 작품성과 성장가능성에 가장 큰 점수를 줬으며 각 작가별 작업경향과 장르, 성별, 출신학교 등이 고려됐다.

선정 작가들에게는 로터스갤러리에서 2017년 6~9월 중 4주간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 지원금(200만원)이 지원된다.

청학 주지스님은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작가의 길에 들어선 신인작가들에게 힘을 주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작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며 의욕적인 작품 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각사는 올해 청년작가 10명을 선



왼쪽부터 이재원, 김단비, 박기태, 양세미 작가.

정해 1년간 개인전 개최를 지원했다. 2017년은 청년작가를 비롯한 중견·원로 작가 전시

를 연다는 방침이다. 문의 062-383-010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술향기맑은터.com

술향기맑은터



술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논,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술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